

‘골프 여제’ 박인비, 그녀의 전성기는 현재진행형

2007년 10대 후반 LPGA 무대 진출

10년째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 꼽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메이저대회 7승 포함 19승,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 골프 역사상 첫 커리어 풀타임그랜드슬램...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그간 쌓아 올린 업적이다. 2007년 십대 후반의 나이에 LPGA 무대에 뛰어 들어 꾸준한 정상을 지킨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 ‘건재’ 일린 통산 19번째 우승

지난해 8월 허리 부상으로 ‘브리티시 여자오픈’ 이후 재활의 시간을 가졌던 박인비는 지난달 초 북극 두 번째 대회인 ‘뱅크 오프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통산 19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일켰다.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최종 4라운드에서 4타 차를 따라잡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 집념을 보였다.

1박2일에 걸친 8차 연장까지 가는 역대급 명승부 속에 이쉽게 패자로 남았지만 박인비가 경기 내내 보여준 품격 높은 투혼은 우승자 못지않게 큰 박수를 받았다.

박인비와 연장 승부를 펼쳤던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는 대회 기간 녹장 플레이에 가까운 경기 운영으로 보이는 하역급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린드베리는 연장 승부가 거듭될 수록 투틴이 길어졌다. 티스어나 아이언샷을 할 때 어드레스를 취했

다가 풀기를 반복했고 퍼팅을 할 때는 2분 가까운 시간을 썼다.

반대로 박인비가 티박스에서 자신의 공을 지켜볼 틈을 주지 않았다. 자신의 퍼팅 순서가 아닌 상황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퍼팅라인을 살피는 ‘비메너’ 플레이로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박인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자신의 경기에만 집중했다. 린드베리가 우승한 뒤에는 축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인비는 “린드베리의 마지막 퍼트가 진정한 챔피언 퍼트였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챔피언을 치켜세웠다. 여왕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LPGA 홈페이지는 “박인비는 경기를 치르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위대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 20개월 만에 세계 톱3 복귀

박인비는 이쉽게 8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손에 넣지 못했지만 세계 랭킹이 수직상승하며 3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랭킹 19위에 머물렀지만 불과 2주 만에 3위까지 경쟁 뛰었다. 2016년 7월 이후 약 20개월 만에 톱3에 복귀한 셈이다.

박인비는 2013년 4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2015년 10월까지 총 2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때가 최전성기라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량이라면 세계 1위 복귀도 점쳐진다.

1위를 지키고 있는 평산산(중국)의 평균포인트는 7.02점으로 박인비와 격차는 0.02점에 불과하다. 박인비가 우승을 추가하면 1위 탈환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각종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시즌 상금 순위에서 48만221달러를 벌며 선두로 나섰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는 69.00타로 선두인 제시카 코다(미국·68.3타)를 바짝 쫓았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54점으로 린드베리(60점)에 이어 2위다.

2013년 이후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에 다시 한 번 도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잦은 부상으로 은퇴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했던 그는 오로지 실력으로 현역 여자골프 선수 중 누가 최고인지 증명해보이고 있다.

2008년 만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US 여자오픈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박인비는 이후 3년 넘게 우승 없이 슬럼프를 겪었다. 2012년 7월 ‘에비앙 마스터스’



지난 12일(한국시각) 미국 하와이 오후우섬에 위치한 코올리나GC에서 열린 LOTTE Championship presented by Hershey 1라운드 8번홀에서 박인비가 아이언티샷을 하고 있다.

에서 우승하며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2016년 손가락 부상으로 데뷔 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올림픽 무대에서 극적인 금메달을 울려 퍼뜨렸다. 선수로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난 뒤 찾아온 슬럼프도 슬기롭게 극복했다.

박인비는 올 시즌 두 번째 대회부터 퍼터를 말뚝형에서 블레이드형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장기인 퍼트가 살아났다. 최근 샷과 퍼트 모

두 안정감이 돋보이며 전성기 못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풍부한 경험까지 더해져 필드 위 박인비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과 같이 견고한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크다. 은퇴라는 말보다는 무언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박인비는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뜻을 숨기지 않는

다. 단, 그때까지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지금대로라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의 한 자리는 박인비의 차지도 되돌아갈 것이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박인비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기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의 전성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준우승’ 김시우, 세계랭킹 12계단 ↑ 39위...안병훈 80위

PGA 투어 RBC 헤리티지서 연장 끝 패배

연장 끝에 이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김시우(23·CJ대한통운)가 세계 랭킹 30위권에 진입했다.

16일(한국시각)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김시우는 지난 주 51위에서 12계단 상승하며 39위에 위치했다.

김시우는 이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 헤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연장 끝에 고다이라 사토시

(일본)에 패하며 준우승했다.

막판 퍼팅 난조로 단독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3차 연장에서 우승을 내줘 시즌 첫 승이자 통산 3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5월 제5의 메이저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개인 최고인 28위까지 올랐다.

상위 랭커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면서 12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다.



더스턴 존슨(미국)이 60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다만 2위 지

스틴 토머스(미국)와 격차는 지난주보다 더 좁았다. 토머스가 우승을 추가하면 둘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RBC 헤리티지에서 PGA 투어 7개 대회 만에 첫 우승한 고다이라 사토시는 지난 주 46위에서 27위로 크게 올랐다.

시즌 두 번째 톱10에 성공한 안병훈(27·CJ대한통운)이 지난주보다 3계단 오른 80위에 자리했다. 100위 이내 한국 선수는 김시우와 안병훈 둘 뿐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지난주 88위에서 한 계단 내려선 89위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1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커쇼, 12K 위력투로 다저스 연패 탈출 앞장...시즌 첫 승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0)가 위력투로 선발이면서 팀의 3연패 탈출에 앞장섰다.

커쇼는 1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2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다저스는 커쇼의 호투를 발판으로 7-2 승리를 거뒀다.

커쇼는 심전 12개를 잡는 동안 불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다. 커쇼는 이날 호투로 시즌 4번째 선발 등판에서 첫 승(2패)을 수확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1.89에서 1.73으로 끌어내렸다.

다저스는 지난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의 알렉스 우드(3%이닝 7실점), 15~16일 애리조나전의 마에다 겐타(2%이닝 5실점), 리치 힐(5%이닝 7실점) 등 선발진이 릴레이 무너져 3연패에 빠져있었다.

커쇼는 에이스 디온 부구를 선발이면서 연패에 빠져있던 팀도 구해 냈다.

7회까지 100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71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안타는 불과 2개만을 맞았다. 7회초 폴 골드슈미트에 중월 솔로포를 허용한 것이 유일한 욕에 티었다.

에이스의 호투 속에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였던 타선도 힘을 냈다.

2회말 1사 만루에서 나온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은 다저스는 3회 1사 만루에서 야시엘 푸이그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이후 오스틴 반스, 체이스 어틀리가 연달아 불넷을 얻어내면서 1점을 4-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4회 선두타자 크리스 타이일러가 좌월 솔로 아치를 그려내 1점을 추가한 다저스는 5회 2사 2, 3루에서 타이일러가 2타점 적시 2루타를 뽑아 내 7-0으로 앞서며 승부를 갈랐다.

뉴스스



심석희 “선발전 준비 많은 고민...재미있게 타려고 노력”

7시즌 연속 대표팀 승선 “휴식 가장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쉽없이 달려온 탓일까. 한국 쇼트트랙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심석희(21·한국체대)는 2018~2019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전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심석희는 15일 목동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제33회 전국선수권대회 겸 2018~2019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종합점수 105점을 기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012~2013시즌부터 7시즌 연속 대표팀 승선이다.

대회를 마친 후 심석희는 소감을 묻는 말에 “선발전 준비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도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로 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많은 고민”이 어떤 것인지 묻자 심석희는 조심스럽게 “아직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했다”고 답했다.

심석희는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이라는 질문에도 “상대를 최

한 고려하면서 고민한 것 같다. 몸 상태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희 입장에서는 심신이 피로할 터다.

평창올림픽까지 쉽없이 달려왔는데 큰 대회를 앞두고 마음고생까지 했다. 코치가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에서 개인 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올림픽 직후 이렇다 할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진전선수촌에 입촌해 세계선수권대회 탐금질을 했고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렀다. 세계선수권대회 이후에는 대표 선발전 준비하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심석희는 다가오는 시즌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민하던 심석희가 대표 선발전